

### 희곡우체통 3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즐거운 편지’라는 시의 제목처럼 하루에 한 통의 편지를 받는 일은 진정 즐거운 일이다. 3월에 시작된 희곡우체통에는 그간 거의 하루에 한편 꼴로 작품이 기고되었다. 희곡우체통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단 하나의 작품을 고르기 위한 공모가 아니기에 선정위원들은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하루 하나의 희곡을 천천히 읽을 수 있었기에 즐거웠다.

물론 희곡우체통의 목표는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작품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작품이 반드시 가장 ‘상품성’ 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희곡공모’에서처럼 거창한 상금이 걸린 것도 아니기에, 희곡우체통에 상품성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의 기고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다. 희곡우체통은 동시에 국립극단에서 올려야 하는 작품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할 계기를 준다.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 그 작품 언어의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늠하는 것, 그것이 국립극단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희곡우체통에 기고된 작품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희곡우체통이 네 번째로 선정한 작품은 <노크 연습>이다. 진지하면서도 유머를 놓치지 않고, 짜임새 있으면서도 때로 험거운 <노크 연습>은 낭송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었다.

<노크 연습>은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연습’이다. 연습이란 시도이다. <노크 연습>은 그러므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이다. 안과 밖을 연결시키려는 시도, 타자와 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다. 타자와 나의 연결이 폭력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시도이다. 최근 작품들의 경향 중 하나는 원룸, 고시원 혹은 연립주택 등 작은 단위로 나뉘어진 공동주택을 극공간으로 삼는 것이다. <노크 연습>도 한 층에 4가구가 사는 4층 빌라를 극공간으로 삼고 있다. 공동공간 속에서 다시 나뉘어진 개별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인데 그 시도는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의 파편화된 의식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의 사회적 삶, 그리고 허물어진 의식들의 파편을 맞추는 퍼즐놀이가 바로 이 작품 <노크 연습>이다.

놀이인 만큼 이 퍼즐을 맞추는 작업은 현실적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이 시도는 연극의 형식을 띤다. 타인이 되는 연극이 그것이다. 주인공 해도의 알바는 타인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하나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허구의 인물로서 타인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연극으로 현실의 퍼즐을 맞추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낭송의 작업이 이 퍼즐 놀이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작가에게도, 그리고 작가의 희곡을 읽어 나가는 독자에게도 놀이를 더욱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희

망한다.

낭송작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작가님들 중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희곡우체통은 피드백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희곡우체통을 통해 국립극단이 찾는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환기해 드리고자 한다. 희곡우체통은 동시대적 작품을 찾는다. 동시대성을 가장 최소한으로 해석한다면, '사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역사극을 통해 현재를 은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은유적 거리를 희곡우체통에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극은 작가 개인의 언어 발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벗어난다.

많은 작품들은 동시대성을 현재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찾았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분명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지만, 동시대성은 그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 속에 드러날 것이다. 단지 이야기의 틀거리가 아니라, 동시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연극적 성찰을 담은 작품을 기대한다.

동시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연극적 성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도 역시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체통 앞에서 작품을 기다린다. 그것이 '즐거운 편지'를 향한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이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